

Sympatex사의 고기능성 신발용 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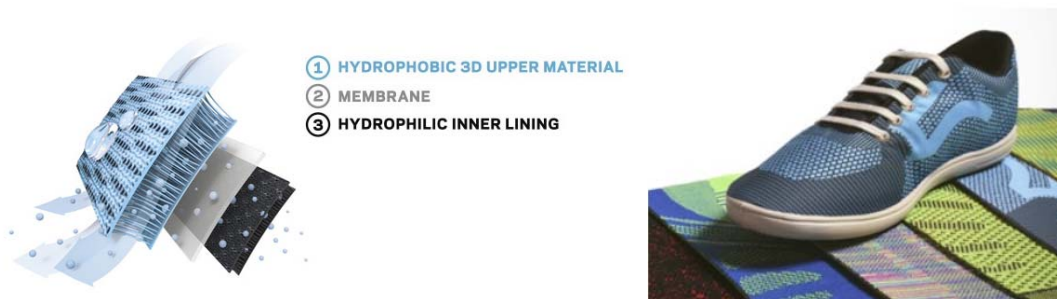
라미네이트 멤브레인 및 기능성 소재개발 업체인 Sympatex사는 2015년 9월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국제 가죽전시회인 Lineapelle에서 방수성을 부여한 신발용 원단인 'Seamless Climate Technology'를 선보일 예정이다.

Sympatex사는 파트너 업체인 PIDIGI S.p.A와 협업하여 Sympatex의 기능성 소재와 라미네이팅 기술을 이용하여 고성능 신발용 원단을 개발하였다.

Seamless Climate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신발용 원단은 100 % 방수성 및 방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유연한 Sympatex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최적의 통기성도 갖는다. Seamless Climate Technology는 멤브레인의 외측에 3D 구조를 갖는 소수성 스페이서 패브릭(spacer fabric)이 있고, 내측에는 친수성 내피를 둔 3중 구조이다. 원단은 봉제선이 없어 뒤꿈치 부분이 이음새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갖는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0 % 재활용 가능한 Sympatex 멤브레인과 소수성 원단으로 제조된 신발은 1년 내내 착용할 수 있다.

Sympatex의 파트너 업체인 VAUDE (아웃도어 스포츠의류), Deeluxe (겨울 스포츠 의류), Rock Fall (보호용 작업복)은 Sympatex사의 'Moisture-tech by Sympatex'를 사용하고 있다. Moisture-tech by Sympatex는 소재의 흡수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발의 수분을 빠르게 내피로 흡수하고, 흡수된 수분은 외측의 친수성 레이어로 전달된다. 따라서 모든 환경조건에서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Seamless Climate Technology

♠ Technicaltextile Home page news (2015년 9월 1일)